

[개념/공부법] 기출문제의 공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

모든 선택지를 일관되게 해설

지엽적 선택지를 제거

오답률 데이터 → 학생들이 많이 고른 답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행위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선택지를 일관되게 해설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익혀 두었던 많은 행동양식은 생각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의 도구를 최대한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좋은 도구는 많은 문제를 커버할 수 있기에 좋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지를 일관되게 해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행동양식의 정리, 그리고 단권화'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지요. 국어 문제를 풀면서 해야 하는 일들을 A4 한 페이지 내로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한 줄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필자가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본 후, 연결하여 의미를 만든다' 또는 '이해하고, 예측한다' 가 될 수 있겠네요. 모호한 이 말들이와 닿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때까지 행동양식을 가지치고, 소수의 행동 양식을 연습하세요.

또, 행동양식과 분석의 결과를 분리하세요. 예를 들면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동동/가시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상층→하층은 방향성 정보이기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정보가 제시되면 표시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유사한 사례로 '정의를 나오면 반드시 체크' 등의 결과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좋지 않습니다. 정의, 방향성 정보와 같은 많은 정보들을 찾아야 하는 정보로 행동양식에 추가한다면 시험장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 많은 행동들을 하나씩 연습할 수는 없어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상하 관계가 중요했던 이유는 방향성 정보라서가 아니라 '가시리'와 '동동' 같은 고려 가요가 민간의 노래인데 궁중의 노래로 편입된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의가 정보량을 나타내기 때문이고요.

2) 지엽적 선택지를 제거

평가원은 지엽적인 선택지를 잘 내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쓸 데 없는 선택지, 문장, 지엽적인 내용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부 선택지가 지엽적이라고 생각하죠.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a. 문장의 중요도 평정을 잘못된 경우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을 경우 지엽적이지 않은 내용이 지엽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장을 잘못 읽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b. 선택지를 너무 있는 그대로만 본 경우

선택지가 항상 지문에 나와 있는 구와 절 그대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가 지문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요즘 평가원은 그런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문제풀이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선택지가 맞다면

→ 지문에서 이해한 내용에 치명적인 모순이 생기는가

만약 치명적인 모순이 생긴다면 손가락 걸기 가능

치명적인 모순이 아니라면

- 손가락 걸기 하면 안 됨 (의외로 답인 경우 많음)

- 이해한 내용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참,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a1, a2, a3 → A → a3/a4

구조 기억하세요.

02 문제 모아보기

특정 영역이 어렵다면
평가원에서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 영역이 약하신가요?

메타인지를 통해 이 영역의 어떤 부분을 못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아요.

(메타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메타인지는 중요합니다. 약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고전소설이 약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전소설에서의 인물관계가 나오면 잡는 방법을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외생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본인이라고 생각되면 오해하신 것) 후자가 더욱 가르치기도 편하고, 굳이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어도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편합니다. 이 장은 메타인지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취약한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무엇을 묻는지, 묻는 것에 잘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의 고전소설과 관련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취약한 영역이 존재한다.

단순히 '고전소설이 취약하다'가 아니겠지요? 문제점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합시다. 고전소설이 나온 문제를 많이 풀어 봅시다. 지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모두 체크하고, 명료하게 해설하기가 어려운 선택지를 모두 체크하세요. 이후 해설지를 참조하여 각 문제들의 공통점을 체크하세요. 여기서 약점을 발견하세요.

b. 약점이 존재한다.

이제 구체적인 약점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약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는 지문의 부분, 선택지의 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대화가 너무 장황한가요? 발화자가 너무 자주 바뀌나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나요? 최대한 많이 알아내 보세요.

c.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이 어려운가? 평가원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03 지문과 문제에서 해야 할 것

지문을 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지문에 나올 내용, 문제에 나올 내용을 '예측'한다.

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문에서 확인해야 할 것

- 1) 모든 문장은 왜 그렇게 배치되었을까?
- 2) 문단 내 연결 관계는 어떠한가?
- 3) 선택지를 깔끔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읽어야 하는가?
- 4) 어려운 부분을 깔끔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5) 이해의 실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6) 공감
 -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부사어, 보조사 등)
 - 왜 그렇게 연결했는가? (접속어)
 - 뜬금없는 이 문장은 왜 나왔는가?
- 7)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8) 표지를 보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1) 모든 문장은 왜 그렇게 배치되었을까?

-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의 배치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문 내 문장을 연결해서 특정한 흐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흐름 자체를 만드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왜 굳이 흐름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문단 내 연결 관계는 어떠한가?

- 제가 구조도를 그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구조도를 그리는 것은 '흐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접속사, 어떤 단어를 근거로 구조도를 그려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3) 선택지를 깔끔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읽어야 하는가?

- 만약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결하지 않았다면 선택지가 깔끔하게 골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선택지를 깔끔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4) 어려운 부분을 깔끔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유독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문에서 찾았다면 '어떻게 하면 지문을 깔끔하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이해의 실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해를 실패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6) 공감

-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부사어, 보조사 등)
- 왜 그렇게 연결했는가? (접속어)
- 뜬금없는 이 문장은 왜 나왔는가?
- 위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지문의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드러내는 형식이 다르죠.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8) 표지를 보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 '이해'와 '인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요. 표지는 우리에게 글을 읽고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선택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 주세요.

선택지에서 확인해야 할 것

- 1)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 2) 틀린 선택지: 왜 **하필이면** 이게 틀린 선택지일까?
- 3) 선택지/<보기>를 통한 읽기의 교훈
 - <보기>를 통한 읽기 팁
 - 선택지를 통한 지문 사고과정의 점검
- 4) 틀린 선택지의 유형 점검

1)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 앞에서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선택지는 지문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틀린 선택지: 왜 하필이면 이게 틀린 선택지일까?

- 틀린 선택지는 아무 내용이나 끼워맞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없어서' 틀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이 내용이 틀렸다면 지문의 내용과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3) 선택지와 <보기>를 통한 읽기의 교훈

- 선택지를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선택지의 관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택지의 구조를 보고 시 해석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요.
- 이는 <보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한 몇 가지의 <보기>와 지문은 작품을 읽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줍니다. 전쟁 소설을 다룬 작품들을 비교하는 <보기>를 통해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강 건너간 노래>를 통하여 태도와 미적 범주, 상황에 대해 안 것처럼요.

4) 틀린 선택지의 유형 점검

- 제가 많이 시도하지는 않지만, 틀린 선택지와 원본 선택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인과 관계, 선후 관계에서 틀리게 냈을 수도 있고, 옳은 것을 옳지 않게 반대로 바꿔서 냈을 수도 있습니다.